

지 상 범 석

# 기쁨 확산시키는 보살행

## '나 바로보기 수행'과 '남의 고통 나눔'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 한뿌리

무 조여도 아니되고 너무 느슨히 하여도 안되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낚는 적절한 조율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삶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네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우선은 최고의 이득은 자기의 건강이란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너나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동분서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삶에서 추구하는 이익 가운데서도 모두를 재산의 이익을 최고로 치고 있지요. 물론 재화의 이익을 많이 보아 풍요롭게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 자연과 생명과 이웃의 소중함을 있어 버려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값있는 이익보다 자기의 몸이 건강하게 더 큰 이익임을 알고 건강함에 감사하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나의 건강

낮은 땅에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동료가 있고 도와 줄 사람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뢰라는 빛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중도의 삶을 잘 지켜갈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중도를 살아가는 덕목은 최상의 즐거움은 열반락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즐겁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가 잘자라서 즐겁고 사업이 잘 되어서 즐겁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이란 것 역시 유한한 것일 뿐입니다. 금방 즐거워하다가 또 금방 슬퍼하는 것이 중생의 삶인데 그것이 다 유한한 즐거움과 괴로움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자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즐거움이란 영원한 즐거움이며 그것이 바로 열반의 즐거움

입니다. 열반이란 지극히 즐거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복되지 않고 언제나 즐거운 곳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치문)에는 '즐거움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말이 나오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 불변의 즐거움에 들기 위한 수행정진을 게을리 말아야겠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사람 영원의 즐거움에 사는 사람 역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중도의 삶을 지켜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와같은 네가지의 덕목을 지켜 사는 것이 바로 중도적 삶인데 물론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나를 깨우쳐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꼭 지켜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남의 고통을 구제한다는 원력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의 고통을 구제한다는 것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시 하는 보살의 원력입니다. 이미 자신의 수행을 어느정도 성취시킨 보살이 그 마음을 타인에게로 돌린 것이니 '상구보리 화화중생'의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위로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해석보다는 위로 진리를 구하며 동시에 더불어 사는 이웃과 기쁨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

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와 내가 따로 없는 곳에서의 무한한 기쁨을 나누는 도리이기도 합니다.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야 쉬운 일일 것 같지만 중생심에서는 이마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사촌이 아니라 처음보는 사람이 땅을 사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사(捨)는 평등입니다. 우주만물은 모두가 평등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하나의 생명이고 파리의 생명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모두가 중생계의 중생으로 떠돌고 있는 때를이 지나지 않는 것인데 잘나고 못나고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좀 잘한다고 어려운 이웃을 압박하면 그는 반드시 다시 가난한 시절을 맞아 압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니 이것이 인연의 끝없는 질서입니다. 평등한 존재로서 모든사물을 대할 때 보살심이 솟아날 수 있으니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공부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란 평등한 체계적 존재로서 상대에게 함없는 기쁨을 주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모여 성품의 착한 씨앗

## 탐진치·희노애락은 밝은마음 가리는 먹구름 건강·믿음·불변의 즐거움 얻는 노력 '중도적 삶'

이 이웃과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큰 이익추구는 없었습니다. 건강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기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하나 최상의 보물은 만족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해서 과욕과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천만원을 가지고 만족 못하는 사람보다 단 일만원을 가지고 만족해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부자인 겁니다.그는 만족할 줄 알아서 그 만족 속에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적 만족보다는 정신적인 만족이 더 중요하지요. 물질과 정신의 만족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치우침이 없으니 지혜롭다는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최고의 빛은 신뢰라는 덕목입니다.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큰 통로이고 다리입니다. 성수대교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저버려서 무너진 다리가 된 겁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의 가장 큰 희망은 바로 믿음입니다. 내게 신뢰라는 재산만 있으면 역만의 부호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내게 신용이란 재산만 있으면 어느

인 것입니다. 열반이란 지극히 즐거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복되지 않고 언제나 즐거운 곳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치문)에는 '즐거움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말이 나오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 불변의 즐거움에 들기 위한 수행정진을 게을리 말아야겠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사람 영원의 즐거움에 사는 사람 역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중도의 삶을 지켜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와같은 네가지의 덕목을 지켜 사는 것이 바로 중도적 삶인데 물론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나를 깨우쳐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꼭 지켜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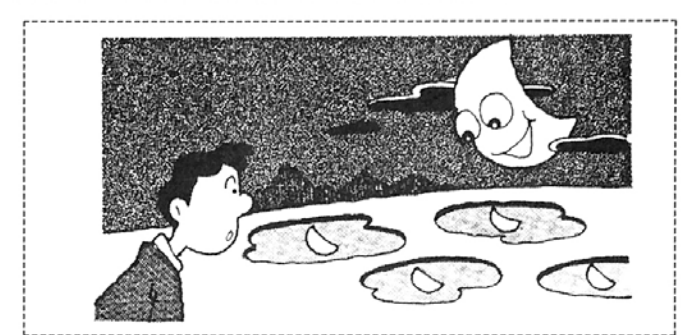
다음으로 남의 고통을 구제한다는 원력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의 고통을 구제한다는 것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시 하는 보살의 원력입니다. 이미 자신의 수행을 어느정도 성취시킨 보살이 그 마음을 타인에게로 돌린 것이니 '상구보리 화화중생'의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위로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해석보다는 위로 진리를 구하며 동시에 더불어 사는 이웃과 기쁨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

자(慈)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란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인데 상대를 즐겁게 해 주는 것 또는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즐거움은 조건이 없는 것이며 유한하기보다는 무한한 것일 수록 좋습니다. 무한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불교의 사랑인 겁니다. 비(悲)는 남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현전시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말이 있듯 자와 비의 실천은 우리 사회의 기쁨을 확산시키는 성스러운 행동임을 잊지 맙시다.

희(喜)는 기뻐하는 것인데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

을 띄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회사의 실천은 나를 버리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를 버린 곳에서만 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사무량심으로 살아갈 때 참다운 나의 모습을 깨우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다.

앞에서 참다운 나를 깨닫고 남의 고통을 구제하는 것이 불교를 믿는 이유라고 말했는데 중요한 것은 나를 깨닫는 때와 남의 고통을 덜어 주는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단 한 찰라도 없이 번뇌망상이 일어나듯 단 한 찰라도 쉬지 않고 화두를 들고 매진하며 보살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도둑이 들어 오는데 누가 문단속도 하지 않는 어리석음으로 그 도둑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까.



지난 번에 회암의 사중법계 중에서 사법계와 이법계, 이 사중법계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사법계가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우주 만유의 차별 세계를 나타내며, 이법계가 현상의 배후에 있는 절대 평등의 본체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 사중법계는 일체 차별의 사법계가 절대 평등의 이법계와 상즉상입하여 원융무애한 세계를 나타낸다. 그리하여 이를 진공과 묘유에 비추어 본다면 사법계란 묘유로서 공즉시공이며, 이법계란 진공으로서 색즉시공이며, 이 사중법계란 이어서 색과 공, 현상과 본체, 용과 체가 원융무애하여 그 구분이 없는 중도의 세계이다.

사사무애법계란 현상과 본체가 원융무애할 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개개의 현상 하나 하나도 서로 무애한 관계임을 본다는 것이다. 앞에서의 비유로 설명하면 북도봉과 남도봉이, 이 파도와 저 파도가, 사과와 달이 서로 원융무애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 '하늘의 달'과 '물에 비친 달' 무애관계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

이 맞고 별의 부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교한 실험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이는 그토록 자명한 방식으로 유도된 별의 부등식에 틀린 곳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별의 부등식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었던 집합에 대한 간단한 논의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의심가는 곳은 자명해 보이는 부등식에서의 변수에 대한 전체 몇 가지 뿐이다. 이에 대한 다소 복잡한 논의를 거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부등식의 변수에 대하여 상정하는 실제성의 가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전역학과는 달리 양자역학의 어떤 경우에는 부등식의 변수에 대응하는 물리량의 실재성을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경우가 실재성을 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보편적인 경우이다.) 더구나 이런 경우에는 한 물리량에 대한 관측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다른 물리량에 대한 관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사무애와 관련하여 본다면 이는 결국 미묘하게 성립하는 상호연관의 한 면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 모든 것이 다 끝없는 연기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 전통 불교 의식 교육

한국 불교 전통 의식의 계승과 후진을 양성하기 위하여 강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1996년 3월 27일(음력 2월 9일)~4월 1일(음력 2월 14일)까지 5박6일 간
- 장소: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승달산 선혜정사
- 참가 대상: 종단을 초월한 모든 사부대중
- 강습 내용: 안차비, 권공 및 작법 등
- 초청 강사 스님: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 이일용 스님
- 강습비: 5만원(숙식제공)
- 교통편: 광주고속 터미널(목포 무안 방면) → 무안 직행버스 터미널 하차 → 무안 군내버스(몽탄 방면) → 몽탄역 앞 하차 택시(5분 거리) → 선혜정사
- 연락처: 전남 무안군 선혜정사 (전화 0636/52-3508) 광주광역시 울곡사 (전화 062/263-4575)

### 대한불교 태고종 선혜정사 능산당 성원 합장

### 생생한 법어, 생생한 불교사료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

##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자,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 1호** 를 발간하였습니다.

주옥 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합본호 1집: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10.15) ▶ 제39호(95.12.27)  
■ 가격: 50,000 원 (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법어의 생략 · 현대학 · 세계학 (주) 현대불교신문사 (대) 737-8881